오차와 오류의 구분

(고후1:12~24)

15.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16.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17.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예 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18.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19.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오차와 오류의 구분>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합니다.
오차와 오류.

최근에 한 직장인이 유럽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여행 중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름휴가를 쓰지 않고 두었다가 연차와 합쳐가지고 유럽여행을 갔습니다.
아주 뜻 깊게 잘 보낸 여행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인데,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서 비행기로 모스코바로 와서 모스코바를 경유해 인천공항으로 귀환하기 위한 계획으로 모스코바에 도착을 했습니다.
모스코바에서 인천으로 오는 비행기의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밤 9시 15분 비행기인데 시간이 많이 남아서 공항 내에서 이것저것 돌아보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하다가 넉넉하게 시간을 잡고 비행기 출발 한 시간쯤 전인 8시 10분쯤에 비행기 탑승 게이트로 갔습니다.
밤 9시 15분에 출발하면 인천공항에 밤 11시에 도착하게 돼있는데, 게이트로 가서 boarding 하려고 하는데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한 시간 전인데 비행기가 벌써 이륙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스마트폰을 가지고 갔는데 세계의 시간을 알려주는 앱을 스마트폰 전면으로 꺼내서 모스코바 시간을 맞춰놓았습니다.
요즘은 시계들을 안 차고 다녀요, 스마트폰의 시간을 보니 여덟시 조금 넘었으니까 여유 있게 넉넉잡고 게이트 앞으로 간 거예요, 그 많은 시간들을 다 한가롭게 보내다가 갔는데, 문제가 어디에 있었나 하면, 유럽전역에 걸쳐서 썸머타임이 실시되다가 해제가 되는데, 러시아가 올해 11월부터 썸머타임을 해제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고 시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스마트폰의 앱이 썸머타임이 해제된 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돼서 시간이 틀려버리는 바람에, 이런 경우를 외국공항에서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게 얼마나 사람 돌아버리게 하는 일인 것인지 모를 겁니다, 이 스트레스가 굉장합니다.
같은 항공사의 비행기도 그 날은 없고, 또 항공표가 없으면 공항당국에서는 무비자체류로 인정해서 잡아두었다가 쫓아낸다는 둥, 별의별 압박을 다 받는 가운데, 겨우겨우 대한항공의 비행기 표를 얻어가지고 돌아왔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미리 스마트폰의 시간과 러시아 모스코바 현지의 실제시간을 비교했으면 오차를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차를 발견했으면 러시아 현지 실제시간에 맞춰서 고칠 수가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오차가 시정되는 과정이 없이 굳어져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오류입니다.
오차라고 하는 것은 아직 굳어진 결론이 아니에요, 그건 시정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깁니다.
근데 오류가 돼버리면 오차가 굳어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일이 낭패가 돼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삶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까지 파악하지 못해서 문제이지, 지금 죽는 게 제일 좋아요.
이 세상에서 어떤 좋은 일과 성공과 형통을 이루어도 얼마나 대단한 부자가 되어도, 지금 죽어서 하나님나라에 가는 것보다 더 좋을 수는 없기 때문에, 죽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살려두시는 이유는 뭡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살고 있는 동안에 사람을 만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계기가 되어주라고 우리를 이 땅에 살려두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계기로서 역할을 하자니, 반드시 필수적으로 일어나야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이 알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알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무감각한 기계가 아니에요, 우리도 인격체에요, 인격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알려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한 우리의 인격적 반응이 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알려질 때, 우리가 인격적 반응을 하는데 여기서 오차가 발생한다는 얘깁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계획과 뜻이 실제로 이 땅 위에서 실행되어지는 때와 방법이, 그 뜻과 계획이 우리에게 알려졌을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 반응할 것 아닙니까? 여기서 반응이라 함은 우리도 생각하고 계획하고 전망하게 됨을 말합니다, 인격체니까.
아무것도 없이 기계처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알려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오셔서 유인 로봇처럼 사람이 안에 들어가서 조종하듯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격체이기 때문에 반응을 하게 되는데, 반응을 하게 될 때 어쩔 수 없이 오차가 발생하게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신앙의 원리는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에 대해 죽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만을 향할 때, 그래서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며 살 때에, 이 세상에서 이루고 싶으신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를 통해 알려지고, 또 심지어는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죽을 때, 왜냐하면 우리가 죽지 않고 그 뜻을 붙잡아버리게 되면 어느덧 나의 뜻이 돼버리고 내 인생을 아름답게 꾸며가기 위한 방편으로 변질돼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내 뜻에 대해서만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죽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실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날마다 죽으므로 오차를 시정해나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너무나 멋진 뜻이 알려졌어요, 그래서 내가 인격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아, 이걸 이렇게 이루면 좋겠지, 저렇게 이루면 좋겠지? 이러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마지막 지점에 도달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내일도 계속되면 내 뜻이 돼버려요
내일은 일어나서 아침에 또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때와 방법에 점점 다가가는 거예요, 오차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는 일이 없이 한번 굳어진 생각을 가지고 실행을 하게 되면 이게 오류가 된다는 얘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냐 하면, 바울이 고린도교회와의 관계에서 자신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고린도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이미 주어지고 있는 그 은혜와 은총의 모든 내용들을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만 하기를 바란다는 그런 의도를 갖고 기독교인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예 하고 아니요 하고' 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예'라고 하는 말은 이 땅을 향해서 갖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수용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니요'라는 것은 그 뜻이 나에 의해서 막히고 방해받고 왜곡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어떨 때 그런가 하면 우리가 육체의 지혜로 행할 때.
육체의 지혜란 우리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갖게 되는 가치관이 있어요, 세상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육체가 있기 때문에 돈이 중요하고, 외제차가 좋고, 명품가방이 좋고, 명문대학이 좋습니다.
이런 세상가치로 좋고 나쁨을 판단해가지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교인들에 대해서도 세상가치의 입장에서 교인들에게 좋은 게 뭐냐, 사업이 잘되는 게 좋다, 이게 바로 육체의 지혜로 목회를 하는 겁니다.
세상가치의 기준에 의해서 교인들에게 좋고 나쁨을 판단해서 사역의 내용을 결정해나가는 것, 이게 육체의 지혜로 목회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예!' 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만을 전달하려는 마음으로 했다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교인들에게 좋을 것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랬다면 '아니요'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막혀버린다는 얘깁니다.

자, 이런 마음으로 고린도교인들과의 관계에서 변함없이 사도바울이 임하고 있는데, 문제는 고린도교인들이 사도바울의 고린도교회에 관한 사역의 계획이 수시로 변덕이 죽 끓듯 하니까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도라면 어떻게 이렇게 변덕스러울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 사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외부에서 들어온 어떤 교사들이나 사도를 자칭하는 이런 사람들의 말이 틀리지 않다, 즉 사도가 아닐 것이다, 이러한 논란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기 전에 3차 여행 중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 편지를 한번 고린도교회에 보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 중에 고린도교회 방문에 대한 계획을 썼는데, 오늘 본문 12절에 '두 번 은혜를 끼친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편지에 쓴 계획은 일단 에베소에서 고린도교회로 갔다가, 고린도는 그리스 반도의 남쪽에 있고 그리스 반도의 북쪽 중부지방이 마케도니아입니다, 거기에 데살로니가교회라든지 빌립보교회가 있는데, 에베소에서 고린도교회로 왔다가 북쪽에 있는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가서 교회를 돌아보고 다시 고린도로 오고, 그러면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구제연보를 들고 갈 것이다, 이런 계획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그 편지 다음에 쓴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 16장에서는 어떻게 변경되었는가 하면 에베소에서 곧바로 고린도로 오지 않고 에베소에서 마케도니아로 갑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에서 교회들을 다 살펴보고 고린도로 와서 머물다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들어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진짜 사도라면 어떻게 이렇게 변덕이 죽 끓듯 이런 식으로 사역을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거짓말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나 봅니다.
사실 우리도 그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사도바울처럼 은사와 기도와 참 신앙과 그리스도와의 동행이 가장 모범적인 사람의 사역 계획이 어떻게 이처럼 손바닥 뒤집듯이 바뀔 수 있겠는가?
분명히 에베소에 있을 때 하나님의 기본적인 뜻의 윤곽이 드러난 겁니다.
고린도로 마케도니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방문지가 마치 바둑 놓듯이 포석으로 딱 딱 놓아진 거예요.
근데 그 포석으로 놓아진 바둑알 사이를 어떻게 메꿔나가느냐 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오차가 발생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어찌 보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오차가 없다고 얘기하거나 오차가 없는 것으로 보여 지는 그런 사람의 사역은 무조건 의심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사는 사람에게 알려져서 그 뜻이 실행되는 과정 속에서 오차가 일어나지 않는 오차 제로점에서 행동할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뿐이었습니다, 예수님 한분뿐이에요.
그 외에는 그게 베드로건 사도바울이건 그 누구라 할지라도 이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오차라는 것이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단을 가릴 때,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뜻과 자기의 말과 계획과 일치한다고 얘기하는 모든 사람을 이단으로 봐도 좋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바울은 지금 이 오차가 생긴 것에 대해서 변명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오차를 오류로 보고 있는 고린도교인들을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뜻을 이루어 가시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즉각적인 실행이 있어요, 그 자리에서 뜻을 알려주시고 그 자리에서 실행하십니다.
예를 들어, 전도하는 과정 중에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난다든지, 또 말씀을 전하는 거라든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듯이 '너희가 당국자들에 의해 잡혀갈 때에 무엇을 얘기할지 미리 염려하지 말라, 잡혀가게 돼서 그 사람들이 추궁하게 되면 그때 성령께서 그 자리에서 너희가 할 말을 알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뜻이 알려지고 이루어지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뜻이 알려지고 실행되는 데에까지 시간과 방법의 간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오차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분명히 예루살렘을 마지막으로 방문할 것이고 그 도중에 마케도니아와 고린도를 방문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방문할 것이고 어떤 방식으로 방문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들이 일시에 한꺼번에 다 알려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바로 인간과 하나님을 구분할 수 있는 표식이기도 해요.

그래서 고린도와 마케도니아와 예루살렘이라는 걸 알았지마는 어떻게 방문하게 될지는 몰랐는데, 분명히 마케도니아와 고린도와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될 텐데, 고린도교인들과 대화를 하고 편지를 쓰는 과정 중에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실행과정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또, 편지를 쓰는 당시로서 사도바울의 마음속에 최선의 길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쓴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 진짜 실행하시는 참값과 비교해서 근사치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오차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은혜 받은 인간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이 오차를 시정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교인들이 이 오차를 앞으로 시정해야 될 오차로 보지 않고 이미 굳어져버린 오류로 확인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교회 목사님들도 목사님들에게서 잘못된 부분이 보이면, 우선 잘못된 부분으로 보는 나에게 잘못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잘못이 없다고 해도 목사님에게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앞으로 우리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드리고 목사님을 사랑으로 인내로 감싸주면서 시간을 두고 고쳐질 것으로 믿는 오차로 보지 않고 오류로 보게 되면. 그때부터 목사님을 비판하고 정죄하게 되고 거부반응으로 일관하게 됩니다.
이건 큰 잘못이라는 거예요.

'교황무오류' 난 이걸 참으로 웃기는 얘기라고 보는 건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오류라는 말의 정의가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교황에게도 오차가 있는 거예요.
오차를 시정해나가면 되는 거지, 오차까지도 없다는 의미의 무오류설이라면 교황과 가톨릭은 이단입니다.
신천지의 그 우두머리가 말하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이 incarnation(성육

신)한 사건이고 요즘 시대는 내가 incarnation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단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바울은 그것이 특별히 교인들에 대한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를 않는 거예요.
오차가 생긴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끊임없이 내가 겸손해야 될 이유이지만, 교인들에 대해서는 교인들도 그렇게 알아들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목사님이 목회 계획을 얘기하시면 교인들의 마음속에서도 당연히 '아, 목사님이기 때문에 오차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목사님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전달하고자 한다는 것을 믿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이건 오차지 오류가 아니다.
또, 목사님도 교인들과 장로님들을 향해서 그러는 거예요.
당회에서 너무너무 못되게 구는 장로님이 있다, 오류로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차로 보고 기다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말에 해당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실행되는 방법이 첫 번째는 즉각적인 실행, 두 번째로 방법과 시간이 알려지지 않은 채 뜻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래서 오차를 통해서 하나님의 실행에 도달하는 그런 방식, 그리고 세 번째 시행착오의 방식이 있습니다.
이건 좀 더 범위가 큰 겁니다, 시간적인 범위도 크고 다 큰 겁니다.
예를 들면, 사도바울이 아시아에서 선교에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아시아 전도의 문이 자꾸 막히는 겁니다.
그러다 마케도니아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부르는 바람에 가게 되지 않아요?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접근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 접근하는 거예요.
이러한 오차의 과정은 어쩔 수 없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차이가 뭐냐 하면,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동등 된 본체로서의 아드님이시고 우리는 긍휼과 자비에 의해서 자녀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실행됨에 있어서 오차를 수정하는 과정이 없이 될 수는 없다는 얘깁니다.

이 오차를 오류로 볼 때, 교회 내의 목사님과 교인들, 장로님과 목사님, 이런 사이에 극복할 수 없는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오차와 오류를 구분하셔서 평강한 신앙생활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우리 모두는 단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부름 받은 자들이지, 우리의 본체가 하나님 되심이 확인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고 오히려 육체를 입고 있는 한, 끝까지 죄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들 속에 있는 모든 잘못이 오차임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갈등을 넘어 화평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단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